'철학이고자 하지 않는 철학'

'태워버리고자' 몸부림에도 훼손할 수 없는 걸작 이지의 《분서》

《분서 Ⅰ Ⅱ》 이지 지음 | 김혜경 옮김 | 한길사 | 각 권 560쪽 내외 | 1권 값 10,000원, 2권 값 12,000원

어린 시절,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곤 하며 무지갯빛 변덕이 죽 끓듯 했던 장래희망 사항들. 그 수백 가지 목록 중에 당연히 '글쟁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어린 내가 무한한 애정과 타오르는 질투를 동시에 느꼈던 친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같이 상큼한 글재주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나는 한 번도 홈그라운드가 아닌 장소에서 글에 관련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인심 좋은 동네잔치 같았던 교내백일장에서 작은 상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한 번도 글 잘 짓는 친구들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나는 언젠가는 글을 잘 쓰고 싶은, 언제나 그저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글을 막연히 그리워하는, 얼치기 문학소녀이곤 했다. 영화나 비디오 관람이 지상최대의 빅 이벤트였던 사춘기 시절. 나의 유일한 일상적 오락은 늦은 밤 FM 라디오를 켜놓고 나만의 비밀 일기장과 노는 것이었다. 혼자만의 일기를 쓰는 동안만은 나는 적어도 성적표의 노예가 아니었고, 남학생 앞에서 인사 한 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숙맥이 아니었다. 손때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꼬질꼬질해진 비밀일기장은 영혼의 자유를 향해 살포시 열린 마지막 비상구였다.

그러나 단지 글 쓰는 순간 한껏 해방되는 영혼의 기쁨만으로는 글쓰기에 대한 대책 없는 목마름을 남몰래 간직할 수 없었다. '넌 당최 무슨 글을 쓰고 싶다는 거냐?', '도대체 글을 써서 밥을 벌 수 있겠느냐'는 물음들 앞에서 나는 늘 속수무책이었다. 국문학을 선택하고 나서는 한층 더 구체적이고 살벌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너는 평론을 쓸래, 소설을 쓸래?" 혹은 "자네는 작가가 될 텐가 연구자가 될 텐가?"라는 무시무시한 질문들 앞에서 나는 언제나 맹한 표정을 지으며 더듬거렸다. 운 좋게 원고료까지 받으며 글을 쓰게 된 이후로는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외치는 서슬 퍼런 질문 앞에서 매번 소스라치곤 했다.

농부가 일 년을 꼬박 바쳐 길러낸 쌀 한 톨만큼, 엄마가 지어주신 따뜻한 저녁 한 끼만큼, 내 글은 가치 있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내 자신의 대답은 언제나 'No'였다. 진정한 창작이 아닌 다른 텍스트에 대한 뒷북이거나 추임새일 뿐인 내 글에 대한 부끄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농부의 피땀이나 엄마의 정성을 감히 넘보는 글쓰기의 꿈은 분에 넘치는 욕심임을, 기쁘게 깨우쳤다. 자신이 쓴 글의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스스로 대답할 수 없다. 다만 내가 글을 쓰는 태도, 글쓰기에 임할 때 갖는 마음의 표정만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연출 분야였다.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헌터'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좋은 글에 대한 집착과 탐심貪心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자, '어떤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곧 장르나 형식의 문제이기도 했다. 국문과 전공생에게 주어진 좁은 선택지, 즉 '작품(소설, 시)인가 비평인가'라는 양자택일은 결코 그 고민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매서운 죽비처럼 쾌감어린 고통으로 내 뒷목을 후려친 두 스승이 바로 루쉰과 이탁오였다. 루쉰은 자신의 글이 어떤 장르가 될 것인가에 철저히 무심했으며 그의 글은 세상을 향한 그의 고독한 전투를 위한 '투창과 비수' 자체였다. 나는 루쉰의 글을 통해 글이란 자고로 무조건 아름답고 봐야 한다는 미학적 허영과 결별할 수 있었다. 좋은 글이란 좋은 삶을 위한 하찮은 핑계이거나 배설물에 불과하며, 삶이라는 토대가 받쳐주지 않는 한, 한낱 글이란 삶에 맹독이 될 수도 있음도 배웠다.

루쉰이 글에 대한 내 오랜 낭만적 허영을 한칼에 베어냈다면, 이탁오 이지의 《분서》는 건조한 철학책이 한 사람을 종일토록 울게 할 수도 있음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글이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장르에 속할 필요가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다른 이의 텍스트에 대한 때늦은 뒷북이어도 좋고, 그 자체로는 홀로 작품일 수 없는 미약한 추임새여도 좋았다.

이지의 글쓰기는 말 그대로 완벽한 '맨땅에 헤딩'이었다. 이탁오는 글을 쓸 때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떤 울타리도, 안전지대도, 하다 못해 아픈 허리를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쿠션도 마련하지 않는다. 그는 글 한 편을 쓸 때마다 최후의 배수진을 쳐놓은 장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그의 글이 진정 무서운 이유는 그가 방패는커녕 갑옷도 갖추지 않은 채 글쓰기라는 전장에 출몰하면서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는 초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글일진대 그것은 반드시 소설이거나 시일 필요가 없으며, 수필이거나 평론일 필요도 없다. 어떤 장르도 아닌 채로 글 자체의 에너지로 진검승부하는 글쓰기. 그의 글은 일상과 현실에 대한 하루하루의 고뇌 자체가 철학으로 여울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지의 《분서》는 철학이고자 하지 않는 데도 철학이 되었고, 차라리 '태워버려야 할 책'焚書이 되고자 몸부림 쳤음에도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걸작이 되었다. 그는 '개념'이나 '분석'의 틀을 거치지 않고서도, 다만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처절한 망설임 자체만으로도 오롯이 철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일기도 수필도 편지도 철학이 될 수 있음을, 아니 그것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진솔한 표현방식임을 보여준 이지. 그는 늦은 밤 고독과 씨름하며 나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가 아름다운 철학적 아포리즘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견딜 수 없는 흐느낌을 토해내는 것이 글쓰기라면, 참아지지 않는 언어를 뿜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철학이 될 수 있다.

이지는 유불선儒佛禪의 경계 어디에도 구획될 수 없는 상상의 사유공간을 창출해 냈다. 이지의 첫 번째 놀라움은 맑스주의는 물론 자본주의도 태동하지 않았던 시기에 맑스만큼이나 독창적인 유물론을 창시했다는 것이다. 그의 글은 우리 안의 은밀한 옥시덴탈리즘을 질책하며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경계 자체를 교란시킨다. 그에게는 맑스의 분석적 혜안과 니체의 서늘한 독설과 프로이트의 끈질긴 굴착의 시선이 모두 깃들어 있다. 쇼펜하우어의 우울한 아포리즘은 물론 칸트의 냉철한 역사인식까지도. 《분서》의 두 번째 놀라움은 그가 견뎌야 했던 엄청난 고통에 비례하는, 아무도 뺏지 못했던 자유의 무게에 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버림으로써 절대적 자유의 진경을 경험하고 갔다. 그는 관계의 구속에도, 전통의 권위에도, 권력의 달콤함에도 주눅들어본 적이 없다. 《분서》의 세 번째 놀라움. 그것은 그를 끝까지 지켜준 품위의 진원지가 바로 다름 아닌 절대적 고독이었다는 점이다. 이지는 자신을 '이단'으로 내모는 세상을 향해 끝내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채 71세에 감옥에서 자살했다.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사람. 《분서》는 앎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교양이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닌, 알고 죽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서러울 것 같아, 차마 멈출 수 없는 그리움으로 뿜어낸 사유의 기록이다. 《분서》는 중국철학의 역사나 중국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치밀한 지식 없이도 그 자체로 더 없는 웃음과 눈물을 선사하는 철학책이다. 철학은 인간의 잠든 의식을 깨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감동의 힘이 있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는 책. 배움을 향한 타는 목마름 자체가 철학이 되고, 생의 연료를 온전히 연소시키는 삶에 대한 간절한 갈구 자체가 기적을 일구었던 것이다. 그가 세상을 읽는 동안 나는 책을 읽을 뿐이었고, 그가 평범한 아낙네의 눈물 속에서 우주의 근원을 볼 때 나는 옆에 있는 아버지의 아픈 신음소리조차 듣지 못했다.